

예수 부활 대축일

제1독서 : 사도 10, 34-37-43

제2독서 : 골로 3, 1-4

복 음 : 요한 20, 1-9

# 숲정미

이 주일의 화답송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을 추자



적막한 어두운 장막을 걷어 내는  
아침 햇살의 기운,  
새롭게 출발하고픈 설레임을 동반하는 여명입니다.  
아침 햇살을 닮아 보려는 마음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일 겁니다.

글·그림 : 동정성모회 손숙희(라우렌시아)수녀

여 명

# 이번 부활에 바라는 일

정 인 섭

봄이 부활절과 함께 온다는 것이 언제나 감격적이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별 느낌 없이 봄이 오고 부활도 오고는 했다. 그것은 아마도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자의 슬픈 깨달음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사실 봄이 예전의 봄과 같지가 않은 것은 어쩔수가 없는 것이 새소리도 훨씬 드물어졌고 꽃도 빨리 이울 뿐아니라 날씨도 일정하게 변하지를 않는다. 사람도 변했다.

무지막지하게 나가는 사람도 많아졌고 예의를 요구하려는 김새가 보이면 선수를 치며 화를 내는 이도 많아졌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은 더 많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드는 태도들이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의 윗층 아파트 사람들은 아래층에 대한 신경은 전혀 안쓰고 사는 참으로 편하게 살아가는 가족이다.

그들은 발에 쇠징을 박았는지 어쩌나 쿵쿵거리며 밤낮으로 걸어다니고 난리가 난 것처럼 사는지 아래층은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래도 천주교 신자가족이고 주일미사는 안 빼고 다니니 모범된 교우층에 든다고 할 말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진공청소기로 주로 한밤중에 온 집안을 청소하는데 대개 밤 11시 이후가 보통이고 그집 주부는 해산하는 여인의 목소리같은 고탐소리로 세 자녀들(중고교생 둘과 대학생 하나)을 온갖욕을 섞어가며 혼내는 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는 것인데, 거기에 더 혼절할 일은 그 주부가 피정도 꽤 자주 다니는 대단히 영성적 관심이 높은 신자라는 점이다. 이쯤 되면 혼란을 느끼게 된다. 계절의 혼란보다 더한 마음의 사태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길이 없어진다.

인생은 본래 단순하지도 간단하지도 않은 것인 줄은 알고 있다. 인간의 역사가 어둡고 잔인한 일들의 연속이었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따르는 이들의 이름이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름값은 해야 도리일 것이다. 그 윗층 가족의 사연을 놓고 내게는 그런 면이 없는지 거울에 비춘 듯 비춰 생각해 보면서 양심이 아파졌다. 세상에 맞춰 산답시고 쉽게 적당하게 살아오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이 무거웠다. 사실 이번 사순시기동안은 예전보다 극기도 적었고 희생도 덜했다. 건강을 고려해서 먹는 것도 여느때와 다를 것 없이 먹으며 지나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랬으니 자선을 더하게 될 수는 당연히 없게 되었다. 극기희생한 만큼 나눌 수 있을테니까 말이다. 애초에 사순시기에만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먹은 것이 잘못이었으리라. 이제는 부활을 맞이했으니(마음이 그러니 제 힘으로 알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고 밖에서 남이 깨줘서 겨우 부화된 병아리마냥 불편하지만) 부활 신앙을 또 누리기로 다짐을 해본다.

첫째, 남에게 어둠 불쾌감 같은 것은 좀더 덜 쏘여주는 하루가 되겠다.

둘째,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되 설치지는 않겠다.

셋째, 말보다는 귀로 듣는 쪽이 더 행복이라는 걸 한 번 느껴보겠다.(죽음에서 살아 부활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안에 빛을 비춰주시니 찬미받으소서. 아멘)

### 숲정이 산책



##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3)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184-421항)

김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 대화를 나눌 상대방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없으면 대화를 아예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 대화는 진정한 대화라기보다는 일방통행식의 의견전달이나 혹은 명령의 하달로 끝나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만 알고 있으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다. 신경 전체는 인간이 역사 안에서 하느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결정체이고, 신경의 첫 문장은 그런 대화의 서곡과 같은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경의 첫 문장은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 요건을 말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신경 첫 문장의 '하느님'을 수식하는 세 단어들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다.

신경은 먼저 하느님을 '천지의 창조주'라 고백한다. 이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곧 존재하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이다. 그 만물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피조물은 인간이다(343항). 인간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356항). 그러니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과 대화를 나눌 상대방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셈이다.

이어서, 신경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이는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멀리 떨어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느님께서서는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아버지처럼 인간을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는 분이시다(239항).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마 8,15)라고 부르며 다정한 신뢰로 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뢰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인간의 존재를 당신 자녀로 인정하신다. 인간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눌 상대자로 인정받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을 '전능하신 분'이라 고백하는

신경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능하다'는 뜻은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뜻이다. 성서는 이 전능하심을 항상 사랑에 관련지어 언급한다. 즉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신다는 것,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다는 의미이다(269항). 그러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인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경의 첫 문장은 하느님과 인간의 완전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두 요건이 담겨있다. 즉 신경은 하느님께서 먼저 대화의 상대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 인간을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하신다고 고백한다. 나아가 신경은 하느님께서 그 대화를 사랑의 대화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하신다는 점을 고백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왜 이처럼 인간과의 대화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가? 혹 인간과의 대화가 그분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에 대해 교리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반드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293항). 오히려 하느님께서 삼위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한다. 즉 하느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한 사랑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고 계시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삼위가 서로 나누시는 영원한 사랑의 대화 사건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대화에서 오는 "당신의 복된 생명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누어주시기를 바라신다"(257항)고 교회는 말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자체로 영원히 이루어지는 완전한 대화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어떤 '대화'를 사랑의 대화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모든 대화의 원천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느님은 가장 완전한 대화를 나누고 계신 영원한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1999년 부활메시지

#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첫 마디 말씀으로 부활의 인사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요한 복음사가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인사하셨다”(요한 20,19). 그 때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요한 14, 27).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참다운 평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화, 일체의 두려움이나 걱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킬 힘이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든 두려움과 걱정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것은, 당신 스스로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마르 14,32) 하고 실토하실 만큼 극도의 두려움과 걱정을 겪으신 다음에 그것을 이겨내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다음 맨 처음 만나신 여인들에게도 “평안하나?” 하고 물으신 다음 “두려워하지 말아라!”(마태 28,9-19)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직장을 잃어 생계가 막연한 이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들도 언제 실직자가 될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그런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이들 가운데에서도 건강, 자녀교육, 미래 등에 대한 걱정에 늘려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사람은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걱정한다고 해서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마태 6,27)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걱정의 뿌리입니다. 사는 동안에 만나는 걱정거리들은 거기서 돌아나는 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쳐이길 수 만 있다면 사람은 모든 걱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때부터는 닫아 걸었던 문을 박차고 나가 바로 전까지 두려워했던 유다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자렛 예수는 하느님께서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되살리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주셨습니다”(사도 2, 22-24).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일체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바오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협이나 칼입니까? ...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김희민 정형외과**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노송신협 슈퍼마켓**  
 부식납품전문  
 · 풍년제과 직영점  
 · 목우촌 정육, 행적판장  
 (조합원은 장려금을 드립니다.)  
 이 정 호(마르코)  
 안 병 목(마르타)  
 전고정문앞 노송신협 2층  
 ☎ (0652) 231-5270

1급 정비업체  
**(유)서부자동차공업사**  
 자체검사 실시  
 견인차량 주야대기  
 사고차량 시내무료견인  
 김 학 수(안드레아)  
 김 순 덕(카타리나)  
 서부우회도로(서곡교 옆)  
 ☎ 211-3533/ 011-659-1145

**백 마 의 스프 레 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 환(마 르 코)  
 인 정 미(프란치스코)  
 ☎ (0662) 253-2453 H·P 011-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 를 기원하며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 35-39).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참되고 보람있는 삶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시는 분, 참다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부활로 이어지는 길임을 깨닫고 그 길 전체를 걸어 가기로 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로마 6, 3-4).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인 <성체성사> 곧 미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무한한 사랑의 신비를 우리 삶 속에 되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1고린 11, 26).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 2천 주년을 기념하는 대희년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희년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1고린 2, 9)을 해주신 하느님의 이 위대한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그 그림자가 드리우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화와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 평화가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와 함께 저는 끝으로 이렇게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골로 3, 15).

이병호 주교 *이병호*

## 요심이 (1339) 김병오



### 수녀원 건립 기금마련 벚꽃 축제

일시 :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장소 : 송광운수 연수원 옆  
문의 : 소양성당 사목회  
☎ 244-3007

###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현 결과 착용후 3일 이내 82%이상 호전  
기존 허리밴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 중 진(스테파노)  
다가동 복지성당 옆  
창의 메디칼 ☎ (0652)282-1601-1

### 엘리트 침대

침대 전문 업체  
오 대 일(요셉)  
김제시 서흥동 진교 246-1  
☎ (0658) 544-0953  
H · P 011-673-2629

###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쿼 : 160,000원
- 욕, 맥반석 돌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제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 토탈 패션 I M A+

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뒤 K.F.C 앞  
☎ (0652) 231-7853

### 원 아 모 집 해나라 아가 놀이방

대상 연령 : 0세~취학전 아동  
유치원 정교사(4년전공)자격증을 가진 원장교사  
박 명 선(젬 마)  
송천 주공 아파트 105동 103호  
☎ (0652) 253-5515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 “그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 - 희년”

올해의 사순 시기는 유달리 길게 느껴졌다. 기도, 단식과 성찰, 자선과 물건의 포기, 봉사활동... 그런데 종이 울리고 “대영광송”이 주위에 가득 차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성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다. 지진과 천사의 출현으로 여인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즉시 부활의 첫 선포자들이 된다. 처음에 사도들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헛소리”로 간주해 버린다. 가끔 굉장한 행복과 좋은 사건들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선함과 관대함에 대한 믿음이 모자라 큰 기쁨의 순간들을 망쳐 버리는 수가 있다. 냉소적인 세상에서는 완전한 선의 출현에 대한 회의주의가 있고 친절의 배후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의심한다. 부활이 오고 그 회의주의는 산산이 부서진다. 기적이 정말 일어난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커다란 반전들이 가능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부활”을 볼 때 - 희망이 다시 세워질 때, 회개가 일어날 때, 그리고 건강이 예상 밖으로 좋아질 때 - 우리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어려운 임신 기간을 통과한 갓난아기의 탄생, 결국에는 최상의 길이 되는 생애의 슬픈 체험, 공동체를 함께 모이게 하는 홍수나 폭풍 등을 본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그 여인들처럼, 우리는 경축하고 선포할 우리 자신의 고유한 부활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을 맞본 사람들, 최악의 삶으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안다.

부활은 한 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된다.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이어야 하며, 이 때 우리는 다시금 자신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리고 감사로써 성찬을 나눔으로써 부활 사건을 상기한다. 부활은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는 그것을 일년에 52번 경축한다. 일년에 한 번은 특별하게 기념하지만, 일년 전체를 통하여 부활은 우리의 시금석이며 장엄 예식이 된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나자렛 예수님에 대하여 배울 것이 아직 많았다. 부활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마찬가지로 그분에 대하여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은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땅 위에 놓여졌고, 여기서 어떻게든 천상의 존재- 자비와 친절, 겸손과 온유, 그리고 인내를 보여주는 존재-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한다. 서로를 참아 주자.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자. 이 모든 덕 위에 사랑을 두자.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자

(골로 3,13-15참조).-- 「대희년을 준비하며 - 하느님 아버지」를 참조하였습니다.

기쁘고,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265일 남았습니다.

### 인터넷 접속요금이 할인됩니다.

교구를 통해 Komet에 가입하시면 월 12,000원 요금을 7,200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수가 101명 이상일 경우에는 6,120원이 됩니다. 기존 사용자도 교구단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 : 교구 전산실(0652) 285-0041 이나 한국통신전주전화국 (0652)283-0200(담당 박은선)

<p>혼수이불, 한복전문점</p> <h3>삼정 혼수프라자</h3> <p>직영숍공장에서 현송을 새송같이 개조해 드립니다 소 병 을(루 가) 최 영 재(루시아) 송천동 서호 1차 아파트 입구 ☎(0652) 274-3983/3943</p>	<p>영창피아노 전주중앙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 단기 할부판매</li> <li>· 중고보상 판매</li> <li>· 조율 및 운반전문</li> </ul> <p>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구. 서중로타리 동원증권 맞은편 ☎ (0652) 252-0103-4 284-6085/284-9989</p>	<p>죽림리조트 유행온천</p> <p>당뇨,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p> <p>사우나, 대종탕, 가족탕, 여관</p> <p>이 봉 근(바오로) 국 장 호(요 셉) ☎ (0652) 232-8832 (0652) 232-8757</p>	<p>서도프라자 확장이전</p> <h3>코아삼의 피아노</h3> <p>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상 바오로) ☎ 225-5252. Fax 223-5332</p>
--	--	--	---



권해드립니다

- ◆ 성직자요지미사
  - 때 : 4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치명자산 성직자요지
- ◆ 푸른군대 일일피정
  - 때 : 4월 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덕진성당
- ◆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때 : 4월 18일(주일) 오전 7시
  - 장소 : 가톨릭 센터 출발
- ◆ 이태주 신부 전화번호 정정
  - TEL : 001(2) - 1 - 904 - 573 - 1833

- ◆ 기억할 사제
  - 4월 5일 이철연(프란치스코) 19주기
  - 4월 11일 이기순(도미니코) 28주기
- ◆ 천호피정의 집 피정
  - 때 : 4월 17일(토)~18일(주일)
  - 주제 :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 지도 : 범선배 신부
- ◆ 4월 예비신학생 모임
  - 4월 25일 성소주일행사로 대체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사**  
 김진소/I 권 70,000원, II 권 50,000원  
 호남교회사 연구소에서 1784년부터 1997년  
 까지 123년 동안의 전주교구의 역사를 총정  
 리하여 수록한 책, I 권은 「통사」로서 전주  
 교구의 역사가 실려 있으며, II 권은 본당,  
 기관, 단체사」가 실려 있다. 전주교구의 역  
 사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왕국의 장소리 1,2권**  
 유홍중/316면/열린/각권 7,000원  
 1779년 겨울 천진암 강학회에서 태동되어  
 주문모신부의 순교로 이어지는 조선 천주  
 교회의 역사를 소설화 하였다. 조선과 중국  
 의 외교관계, 정조시대의 박해, 신유교난에  
 이르는 역사와 '천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순교한 초기 신앙선조들의 발자취가  
 감동을 준다.

**Action Song(CD, 테이프)**  
 이필호 정기송 편곡/59면 40초/4,000원  
 '액션송'이란 몸짓, 율동과 함께 하는 노래  
 로 젊은이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주님  
 께 대한 찬미와 사랑과 갈망, 어두운 세상  
 에 대한 포용과 희망등을 젊은이 특유의 열  
 정으로 노래하여 신선한 감동을 준다. 본당  
 의 청소년 모임에서 환영받을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몰이해와 수난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다른이들의 죄를 죄로  
 다뤄지지도 않으며,  
 마침내 사람들의 발이 되어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으로  
 역겹을 두고 돌고 돌았을 죄와  
 미움의 폭력이 처음으로  
 세상에서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살아 남을  
 사랑의 신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한사람 이야기**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바오로딸수도회	매월 첫째주일 오후 2시	바오로딸 서원	(0652) 252-3398
사랑의 씨튼 수녀회	매월 셋째주일 오후 3시	용머리성당 수녀원	(0652) 281-0441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오후 2시	호성동성당 수녀원	(0652) 244-0094
샬트르성바오로수도회	매월 둘째주일 오후 2시	이리 창인동성당 수녀원	(0653) 858-4724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서학동성당 수녀원	(0652) 284-2276
동정성모회(전주,이리)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평화동성당 수녀원	(0652) 232-5004
살레시오여자수도회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정읍 연지동성당 수녀원	(0681) 533-257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삼천동성당 수녀원	(0652) 226-3487
인보성체수도회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	중노송동 본원	(0652) 284-3231
콘벤뚜알프란치스코회	매월 첫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 793-2070
살레시오수도회(남자)	매월 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62) 512-0332

**'99살레시오 여름신양학교**  
 주제 : 마리아의 여정(루가 1,47)  
 기간 : 7월 22일~8월 15일까지  
 (2박 3일씩)  
 회비 : 선착순 마감  
 문의 : 대전 살레시오 교육회관  
 (062)584-0654(남영미 수녀)

**부산 성 베네딕도 수녀원 성소모임**  
 일시 : 4월 11일 오후 2시~5시  
 (매월 둘째 주일)  
 장소 : 호성동 성당 수녀원  
 문의 : (0652) 244-0094  
 (051) 753-1131~4

**신약농장·토종마을 인신가**  
 유왕오리, 오골계, 토종닭, 토종돼지, 흑염소,  
 율니우, 홍화새, 서목태, 유왕미늘, 인신죽염,  
 유왕오리알, 유왕오리엑기스  
 월간 신도불이 건강,  
 각종 토종약재 및 토종 농,특산물  
 농장☎(0677)562-1308  
 휴대폰 011-681-4985  
 판매장☎(0677)563-3385

**송천 정형외과의원**  
 개 원 인 사  
 진료과목 : 정형외과  
 (골절, 관절염, 골다공증  
 허리·목 디스크)  
 전문의 : 박 영 주(세례자 요한)  
 송천 초등학교 후문 옆  
 ☎(0652) 274-1053-5

**자동차보험 전문회사**  
 (주) 에이프러스원 전북사업본부  
 (총괄법인 대리점)  
 본부장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욱(리드비나)  
 ★ 영업소 및 사용인 모집  
 천주교 서신 신협 3층  
 ☎(0652) 251-3930-2

**전 일 관 광**  
 신혼여행전문  
 금강산관광  
 관광버스대절  
 조 선(안토니오)  
 ☎(0652) 288-6666

**가 나 석 유**  
 보일러 등유, 사무실 난로 등유  
 보일러 무료 점검 서비스  
 \* 신속배달  
 대표 : 임 영 남(글라라)  
 ☎(0652) 286-5151  
 (0652) 285-9495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 승 연(도명고)  
 ☎(0652) 241-2000

## ■ 임순남 · 무진장지구 본당소식 ■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서석희  
F A X 633-0081 수녀원 632-6916 사목회장 김초곤

1. 부활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치량 불현 하신 분 : 양재은(다니엘), 김복례(막달레나), 이현종(닐로) 각 10만, 장평식(프란치스코), 장영숙(로사리아) 각 5만, 이막내(마리아), 김점순(유스티나) 3만, 누계 - 935만  
\* 감사합니다
  3. 새벽미사 : 5일(월) 전 6시, 성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성소후원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금주 모임 : ① 사목회 - 8일(목) 후 8시, 사제관  
② 구역장 모임 - 9일(금) 전 10시 30분  
③ 성가대 협의회 - 11일(일) 미사 후
  5. 성체 강복 : 8일(목) 후 7시 30분 \* 사목위원 참석바랍니다
  6. 교무금을 월별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차 헌금 : 11일(일)은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8. 금주 전례 : 해설 - 양규, 독서 - 김초곤, 정계자, 봉헌 - 이영진부부
  9. 차주 전례 : 해설 - 오경영, 독서 - 김종익, 서정순, 봉헌 - 조광익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07,500원 □ 교무금 : 957,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박찬신  
\* \* \* \* \* 324-3555 수녀원 322-2399 사목회장 이두홍

1. 축하 예수부활 : 교우가정과 이웃여러분에게 예수부활을 축하드립니다
2. 여성분과회 : 7일(수)
3. 사목회 : 화요일 저녁
4. 반희장 모임 : 9일 아침미사 후
5. 중고생 교리에 부모님의 관심을 꼭 두십시오
6. 금주 전례 : 해설 - 정광욱, 독서 - 김세웅, 이영자  
봉헌 - 이두홍 부부, 보편기도 - 주홍규 부부
7. 차주 전례 : 해설 - 김정희, 독서 - 이용석, 강금자  
봉헌 - 한인홍 부부, 보편기도 - 김순임, 강금자

□ 지난주 봉헌금 : 361,600원 □ 교무금 : 1,714,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종신  
유치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사목회장 공무택

- ◎ 우리 본당은 ① 공부하는 신자 ② 기도하는 교우 ③ 용서하는 공동체  
◎ 축하 예수 부활 대축일
1. 사목회 : 8일(목) 후 6시 30분
  2. 성심회 : 9일(금) 전 10시 30분
  3. 구역(반)장회 : 9일(금) 후 2시
  4. 성가정회 : 9일(금) 후 7시 30분
  5. 꾸리아 : 10일(토) 후 2시 30분
  6. 성모회 : 다음주일 교중미사 후
  7. 금년도 애령의 가입합니다 : 1년 회비 - 5천원
  8. 금주 전례 : 해설 - 김미카엘, 독서 - 이요셉, 노다리아  
봉헌 - 양글레멘스, 김요안나

□ 지난주 봉헌금 : 1,082,830원 □ 교무금 : 1,747,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정승현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사목회장 박건홍

- ◎ 축하 예수 부활 영세 : 부활 준비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성서쓰기, 사랑의 저금통, 새날 새출 실패포 내 주십시오
1. 성당 지붕 보수와 페인트 공사에 찬조하신 분 감사합니다 : 최남현, 문여중, 김영훈, 임나윤, 오순복, 이용근, 김양남, 김영수, 김정애, 박문덕, 오정자, 이재순, 박창수, 안정일 총 46명 3,480,000원
  2. 우리 가정은 : ①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는 가정  
②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가정 ③ 이웃에 봉사하고 나누는 가정
  3. 구역장 모임 : 6일(화) 4. 성모회 : 9일(금) 5. 안나회 : 다음 주일
  6. 감사 헌금 : 박건홍 30만, 이순연 2만, 방금식 3만
  7. 금주 전례 : 해설 - 안정일, 독서 - 김신자, 박건홍  
봉헌 - 정준원, 청소년 - 자모신 마리아 Pr.
  8. 차주 전례 : 해설 - 김성애, 독서 - 원경애, 은강훈  
봉헌 - 정윤열 부부, 청소년 -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Pr.
- 지난주 봉헌금 : 본당 442,990원 삼치 71,200원 복흥 42,100원  
동계 31,000원 □ 교무금 : 1,078,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수녀원 433-1531 유치원 433-2293 주임신부 현유복 사목회장 허인석

1. 부활 대축일 행사 : ① 1부 - 미사 전 10시 30분  
② 2부 - 만남의 자리, 점심  
③ 3부 - 공소별 장기자랑, 줄다리기, 윷놀이, 경품권 추첨  
\* 공소 미사 없음(한돌, 부귀)
2. 감사 : 고운진(무가), 서귀동(미카엘) 각 돼지 1마리
3. 감사 헌금 : 이치상(요셉) 5만원
4. 전교 서약식 : 미사 봉헌식때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활 대축일 제대꽃 봉헌자 접수 : 본당 사무실, 수녀원
6. 모임 : ① 구역(반)장 - 6일(화) ② 구역 공동체 - 7일(수)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김봉술  
F A X 642-6319 사목회장 정정만

- ◎ 99년 오수는 ...  
· 어르신을 공경하는 공동체 · 말씀과 몸으로 봉사하는 공동체  
· 지역사회를 아끼는 공동체 · 함께 가요, 우리!
- ◎ 이동목욕차량 복지서비스 : 목욕수혜자, 자원봉사자, 재정후원자 모집 (목욕봉사, 재정후원, 운전봉사, 의료봉사, 미용봉사, 안경맞춤봉사, 미사와 기도) - 지로번호 7648931
1. 범자 봉성체 : 6일(화)
  2. 저녁미사 : 4월 6일부터 화, 목 7시 30분
  3. 사목회 : 7일(수) 후 7시 30분
  4. 외딴 교우의 밤 : 9일(금) 저녁식사
  5. 주일미사 차량 운행표는 게시판 참조
  6. 1구역장 - 이숙자(로사리오), 2구역장 - 오안순(로사)  
봉사분과위원 - 서완원(예로니모)  
어르신 분과위원 - 정광현(마르티노)
  7. 금주 전례 : 해설 - 문판이, 독서 - 김옥기, 문정희
  8. 차주 전례 : 해설 - 문판이, 독서 - 정광현, 조경희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정천봉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사목회장 이창호

- ◎ 축하 부활 :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모든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견진성사 : 11일(부활 제 2주일) 전 10시 30분  
\* 견진자와 대부모들은 1시간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2. 견진교리 : 오늘 미사 후  
\* 견진대상자와 대부모들은 꼭! 참석바랍니다
  3. 성체강복, 울드레아 : 8일(목) 저녁미사 후
  4. 성서백주간 : 성서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매주(월) 후 7시 30분  
만남의 방으로 오십시오, 대상 - 형제님  
\* 11일 학생미사는 없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65,500원 □ 교무금 : 640,0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최용준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사목회장 송남수

- ◎ 축하 부활 :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 구역장 모임, 청년회
  2. 차주 모임 : 요셉회, 성모회
  3. 공소미사 : 차주 - 쌍암 7시
  4. 미사시간 변경 : ① 아침미사 - (월) 5시 30분  
② 저녁미사 - (화, 수, 목, 토) 8시
  5. 봉성체 : 8일(목) 전 9시부터
  6. 성가연습 : 8일(목) 미사 후
  7. 사목회 : 10일(토) 후 9시
  8. 사순절 저금통 :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7. 금주 전례 : 독서 - 김중환, 한상남, 기도 - 김선옥  
봉헌 - 정영수 가정
  8. 차주 전례 : 독서 - 김진석, 안정례, 기도 - 임 남  
봉헌 - 김성빈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328,67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강명규  
수녀원 351-1228 사목회장 박동표

- ◎ 신앙을 기쁨으로 삼고 생활화 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 이 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종들을 주자시편 117
1. 주 침으로 부활하셨다. 알렐루야 : 주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부활 대축일 행사 : 미사 - 전 10시 30분, 미사 후 중식 및 게임
  3. 저녁미사 시간 변경 : 후 8시로
  4. 1인 1단체 가입하여 소속금을 가집시다
  5. 부활시기 제대꽃 봉헌자 접수 : 사무실
  6. 부활절 행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금주 전례 : 해설 - 김미숙, 독서 - 정영수, 김은주  
봉헌 - 박동표 부부
  8. 차주 전례 : 해설 - 이유미, 독서 - 박병준, 이영신  
봉헌 - 최나귀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15,720원 □ 교무금 : 170,000원

7. 예비신자 환영식 : 11일(일) 공식미사 중  
교리 - 18일(일) 미사 영성체 후, 교리실
8. 첫 영성체 대상 어린이 및 어머니 모임 : 13일(화) 후 5시, 성당  
교리 - 14일부터 매주 화~토 후 4시~5시, 회합실, 교재대금 - 3천원  
\* 신청서 안낸 어린이는 13일까지 제출바랍니다 - 사무실
9. 성당 청소 : 은총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 622,320원 □ 교무금 : 1,102,000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숲정이를 전달합니다.